

# 계육산업뉴스

## Broiler industry

사단법인 한국계육산업협회(가칭)

발행 및 편집인 : 김홍국

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TEL(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02)263-3598, 3599

제2권 제1호 통권7호

1

1996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96년을 닦고기 신선육 수출의 원년으로...

국내 최초로 GATT에 의한 의무 수입 물량이 공매를 통해 수입되었던 1995년은 육계산업에 이어 새로운 전환기적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수입육이 냉동육으로서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국내생산육에 비해 열등하였다고는 하지만 향후 저렴한 가격, 우수한 품질의 외국 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국내 육계산업으로의 국제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하게 부각된 한해였다.

WTO체제의 출범은 국내 시장을 개방 시켰지만 반면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경우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 육계산업이 그동안 계열화 체계의 정착 및 발전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였다고는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 선진 경쟁국과의 경쟁력은 아직도 약한 수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최대의 닭고기 수입국인 일본을 지침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일본시장을 우리 시장화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육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육계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계열업체들의 보다 강력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계열업체들이 육계산업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또 국내에서는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선진 경쟁국의 계열업체에 비하면 영세하기 그지 없으며 미국의 타이슨, 태국의 CP그룹 등 대규모화 된 계열업체와의 국제 경쟁력은 미약한 상황이다.

국내 육계산업이 진정 국제 경쟁력을 확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열업체들의 규모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강구되고 추진되어져야만 한다.



김홍국

본회 회장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이를 계열업체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따라서 계열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을 곧 육계산업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육계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각종 지원체제의 수출지향적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 일본시장 등 거대규모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종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육계산업은 진정한 세계속의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며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육계산업의 수출은 그동안 특정 품목의 소량 수출에 의존하여 왔으나 그동안 수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신선육의 대량 수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병자년 새해에는 신선육의 대량수출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과 어려워지는 여건속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 식량산업으로서의 굳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육계산업 종사자 모두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특히 계열업체 관련자는 더욱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것이다.

농업의 중요성은 농업의 비중이 적은 선진국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며 병자년 새해에는 회원사 및 계육산업 관련인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이길 기원하는 바이다.